

중국 서해 구조물에 잠수부... “군사활용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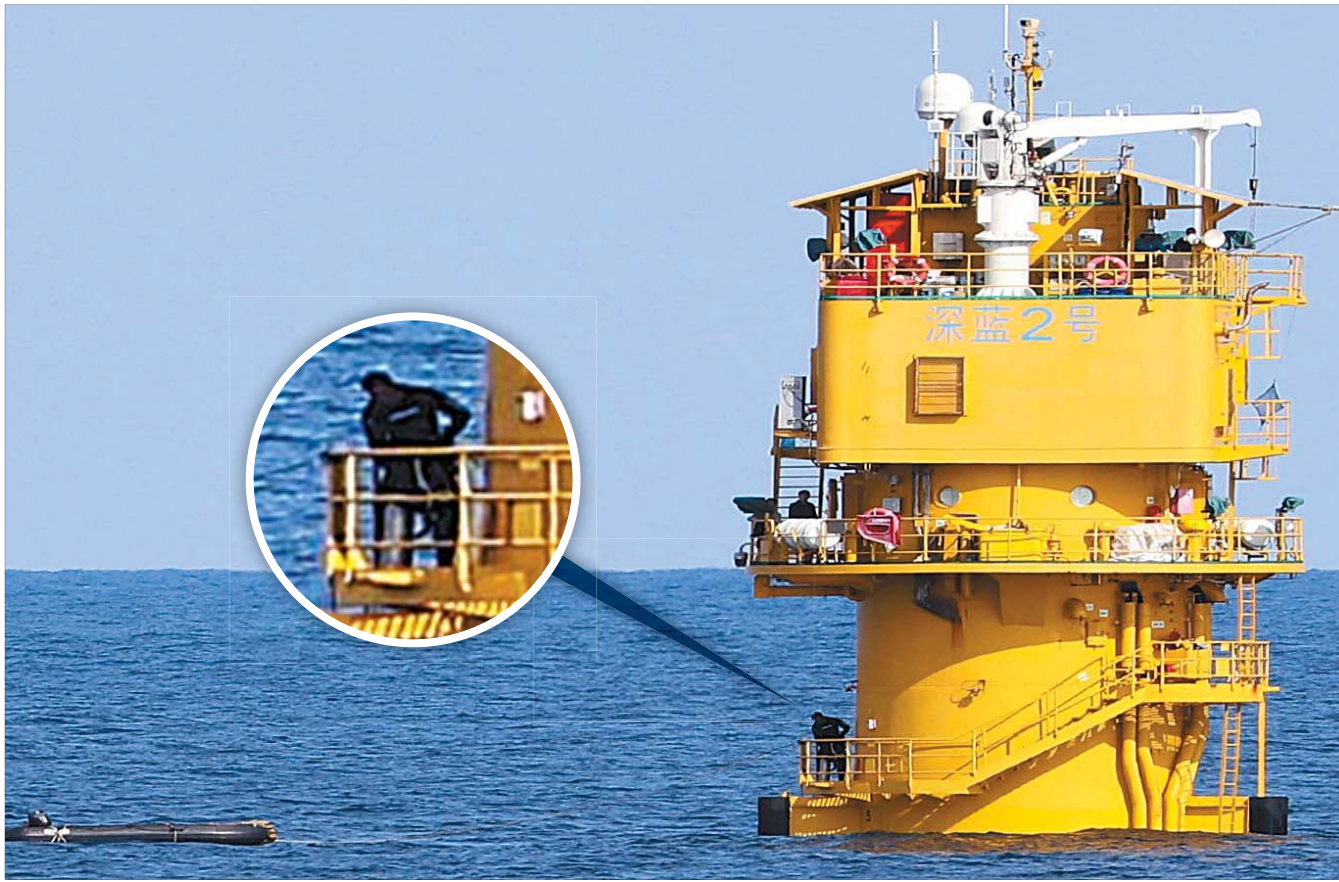
〈선란 2호〉

중국은 “양식 시설” 주장하지만
검은색 고속보트와 인력 5명 확인
산소통 등 양식장선 사용 드물어
“남중국해처럼 서해 내해화 우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부 등이 활동 중인 정황이 우리 측 해경 카메라에 잡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중국 불법 구조물 중 하나인 ‘선란 2호’에서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이 각각 서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계단 위 사람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옆에는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가 떠 있다. 이 의원은 “잠수복과 산소통은 통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등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어업 활동만 허용되고,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PMZ에는 중국이 2018년과 지난해 각각 설치한 선란 1·2호와, 이를 위한 관리 보조 시설 명목으로 2022년에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선란 2호)에서 관리 인원이 포착됐다. 해양경찰이 지난 8월 촬영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사진에는 일반 양식장에선 보기 힘든 산소통과 잠수복을 입은 사람(원 안)과 고무보트까지 보인다. [사진 이병진 의원실]

설치한 구조물까지 총 3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중국 정부는 줄곧 “연어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어업 목적의 시설물”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문가들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중국의 ‘알박기 시설’일 개연성에 무게를 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PMZ 내 구조물에 사람을 상주시키려는 중국 측 의도가 명확해졌다”며 “어업 협정 위

반이자 국제법 저촉이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도 “올 2월 중국이 우리 해경 조사단의 접근 시도를 막았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다”며 “엄연한 불법 구조물이기 때문에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강제 철거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6월 중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안을 의결

했다. 이병진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방중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도 “비례 대응을 약속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응 시설 예산은 한 톨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실상 ‘서해 공정’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북 탄도미사일 발사 APEC 앞 무력시위

단거리 수발... 이재명 정부 첫 도발
“대남 위협하고 대미 협상력 높이기”

북한이 2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동북부 내륙으로 발사했다. 미·중을 비롯, 주요국 정상이 총집결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주일여 남겨 놓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을 노린 타격 능력을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해 동북부 내륙에 탄착했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황해북도 중화군은 평양시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앞서 북한이 2023년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계열 미사일을 쏘던 곳이다.

군 당국은 고도·궤적 등 비행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미사일이 지난해 9월 18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발사한 ‘화성-11다-4.5’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은 ‘설계상 4.5t급 초대형 상용(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에 맞대응해 4.5t의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한국형 병커버스터’ 현무-5는 8t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연말 실전배치가 시작된다.

화성-11다-4.5는 ‘화성-11다’ 계열에 4.5t이란 탄두 무게를 붙인 명칭으로 보인다는 게 당시 군 당국의 평가였다. 북한이 이날 실제 탄두 중량을 더 늘린 미사일을 쏜 것이라면 명칭에도 이를 반영해 공개할 수 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 6면 ‘북 도발’로 계속

INSIDE
제발 찾아온 ‘120억 스캠몸통’
캄보디아 대사관, 그냥 보냈다
▶ 8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김용범 “한두개 쟁점 팽팽”... 관세 타결 땀 안보 패키지딜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두 가지 입장이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한·미 관세 후속 협상차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 실장이 이번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의제를 함께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관계기사 4면



금융으로 해답(海答)을 찾겠습니다

VISION
글로벌 해양강국의
종합해양지원기관

kbc 한국해양진흥공사